

ACA-3 서울大會를 맞으며

3rd Asian Congress of Architect in Seoul

吳雄錫 / 本協會前任會長

by Oh, Woong-Suk



▲ ARCASIA 총회석상에서 ACA-3 서울대회 초청연설을 하고 있는 吳雄錫 前會長

亞細亞地域建築士協議會(ARCASIA)는 韓國을 포함한 各亞細亞地域開發途上 11個 國家間의 建築士協會 國際協議機構이다.

그 設立趣旨는 隣近 國際間의 團合과 友誼를 통한 友誼增進과 對社會地位向上, 서로의 情報資料 交換을 통한 建築文化와 技術의 發展, 各國內 問題解決, 研修 및 大學教育 制度研究 그리고 作品活動 環境改善등을 各 會員國間의 相互協力과 支援으로 이룩해 보자고 하는데에 있다.

그동안 우리協會는 歷代會長 및 任員 그리고 會員여러분의 꾸준한 努力으로 相互訪問과 交信等을 통하여 國際的인 活動을 해나왔으며 지난 ARCASIA의 第1次大會(ACA-1.1984. 10. 25 마닐라)에는 당시 金枝泰會長을 團長으로 한 20여명의 參觀團이 參加하셔서 正會員國으로의 加入이 學論되었었다.

그후 우리協會는 정식 會員國加入 問題를 두고 得失이 무엇이며 歷史와 文化의 背景을 달리하고 있는 그들과의 和合問題 그리고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政治, 經濟 및 外交的 側面의 考慮와 우리 國內問題로서 UIA와 關聯하여 國際活動窓口의 一元化等 問題가 신중히 考慮되었으나 國際化時代의 흐름속에서 孤立될 수 없으며 적극적인 主導的 國際活動을 하므로써 우리들 자신과 協會를 發展시키고 우리들의 當面問題를 폭넓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는 會員여러분의 뜻을 수렴하여 支部長會議과 諮問會議를 거쳐 任員會議에서 決議함으로써 正式으로 加入申請書를 보내고 加入을 하기 위한 活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1985年 11月 18日 印度뵈메이 市에서 開催되었던 ARCASIA 第6次 理事會에 加入申請者의 資格으로 우리代表團 一行(本人, 宋基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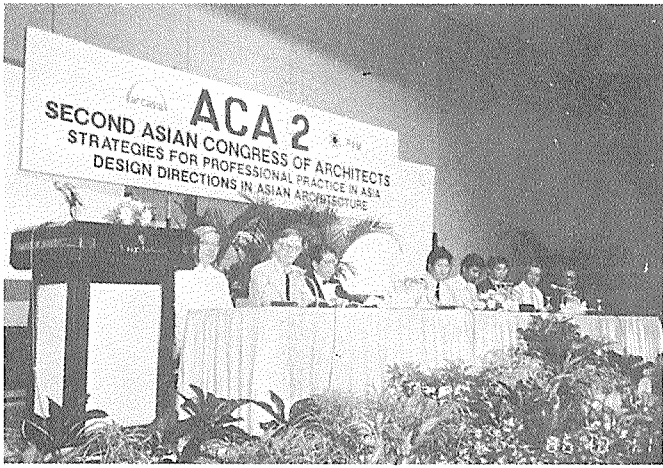
金知德)이 參加하여 理事會 席上에서 正式 加入의 뜻을 밝히고 北韓 또는 中國의 加入 問題에 대한 質問과 우리協會가 韓國을 代表하는 團體인지에 대한 確認하는 質疑를 거쳐 正式會員國(理事國)으로서 正式 加入承認 決議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協會의 ARCASIA 會員國 加入이 國際무대에 進出하게 된 發展的인 계기가 되어 앞으로 協會와 우리 會員여러분들에게 크게 發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中國이나 臺灣이 國號使用 問題로 加入申請書를 提出한 狀態에서 滿5年이 되도록 아직도 正式 會員國이 아닌 參觀國資格으로 每年 理事會와 大會行事に 參加하고 있다고 하는 實情을 보아도 國際活動이 얼마나 政治에 민감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지 實感할 수 있다. (大韓建築士協會誌 No.201호 1985年 12월호 P.36 第6次 ARCASIA理事會 및 ACA-2 參觀記 參照)

우리協會가 會員國으로 加入된 후 처음으로 ACA-2 開催國이었던 말레이시아 쿠아라룸폴에서 1986年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開催되었던 第7次 理事會에서 理事國 資格으로 參席하여 諸般事項을 協議 또는 決議權行使를 하였으며 任員改選에서는 本人에게 副會長이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졌었으나 사양했으며, 대신 ACA-3 大會와 學生 Jaboree 大會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에 力點을 두어 活動한 結果 結實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ACA-2 大會는 理事會에 이어 11일부터 4일간 祝祭분위기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 代表團 一行은 本人과 宋基德, 李永一, 金知德, 朴奎永, 趙載元, 田鳳季, 金宇成씨 등 8名으로 構成되어 參加하였고 그외에 20여명의 회원참관단과 임인혁 사무처장이 자리를 같이 하였으며 학생 Jamboree 에는 學生 代表로 學生作品 優秀賞 受賞者인 최병무, 윤희준君이 作品을 展示하며 參加하였었다.

지금 全世界는 國際間의 相互交流와 協力時代의 물결속에서 共存하며 앞을 다투어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속의 韓國建築의 現 位置를 알려야겠고 發展의 方向을 찾아 뒤져있는 問題點들을 國際活動을 통하여 새로운 角度에서 폭넓게 解決해 나가야 하겠다.



▲ ACA-2 회의장경 (연단)



▲ ACA-2에 참석한 우리나라 대표단

大會期間中 會員國家 代表團員들과는 오랜 친구들을 만난듯이 즐겁게 환담하고 친숙해졌었다. 특히 우리가 準備해 가지고 간 Forum 時間에 上映된 우리나라 建築을 紹介하는 Multivision은 음악을 곁들린 토오키까지 크게 效果를 보아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이 보였다. 大會順序의 끝으로 韓國代表인 本人의 ACA-3 서울大會에 대한 案内와 人事말씀을 하고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하고 끝말을 하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大會는 폐막되었다. (大韓建築士協會誌 No.212호 1986년 11월호 P.42 제 2 회 아시아건축사회의 記事 參照)

우리 協會도 이제는 國際化時代에 積極呼應하여 그동안 뒤고 길러온 底力을 바탕으로 活動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난 1985년 3월 30일에는 日本建築士會聯合會 太田和夫 會長을 招請하여 親善交流覺書에 相互 署名하여 每年 交換訪問과 資料交換 그리고 建築法, 規定, 制度等을 比較 研究하고 있으며, 1985년 6월 9일에는 美國센프란시스코에서 開催되었던 '88AIA大會에 招請받아 參席하였었으며 이어서 워싱턴에 있는 AIA本部를 訪問하여 相互關心事에 대한 協議를 하였고 앞으로 相互親善交流할 뜻을 期約하고 많은 資料를 얻어 歸國한 바 있었다.

지난날 韓國이 中東에서 海外建設이 크게 奇與한 바 있었으나 設計活動面에서는 거의 직접 受注實績이 없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國際社會에서의 競爭力이 없음을 實証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現代建築이 外來樣式이고 그 歷史가 짧다고는 하나 항상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88올림픽 서울大會에서 우리는 全世界의 耳目을 서울에 모아 成功的으로 大會를 치름으로써 國際社會에서의 韓國의 地位를 크게 格上시켰다.

지금 全世界는 國際間的 相互交流,

協力時代의 물결속에서 共存하며 앞을 다투어 發展시켜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世界속의 우리들의 建築의 現位置를 알아야겠고 發展의 方向을 찾아 뒤져있는 問題點들을 解決해 나가야 하겠다.

外國의 大學教育은 日本과 韓國만을 除外하고는 全部가 獨立된 5年制 建築大學에서 履修되며 建築士는 社會에서 最高의 待優를 받고 있으며 모두가 윤택한 生活을 하고 있는 實情이다. 東南亞 各國은 대부분이 英國係 영향권에 속해 있는 實情이며 生活水準은 香港, 싱가포르, 대만등을 제외하고는 GNP 比較面에서 韓國보다도 뒤지고 있는 實情이나 建築만은 英國, 호주등지에서 教育된 建築士들이 主軸이 되어 活動하고 있는 탓인지 훌륭한 作品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으며, 建物 하나하나를 正성을 다하여 創作해 나가고 있는 作家의 態度나 社會人의 建築士들에 대한 優待認識이나 좋은 作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法規定이나 制度等은 本받아야 할 점이 많다.

우리나라 建築法, 建築士法이나 地方條例中 問題가 되고 있는 監理方式이나 建築士處罰規準 또는 實効性없는 綜合建築士事務所制度等이나 二重規制로 Design을 粗害하고 있는 地上駐車比率等은 全世界에서 비슷한 例조차 찾아볼 수 없는 問題들이다. 지난 86年度에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委員會에서 問題視했던 建築設計入札 制度化의 事件當時 國際間的 協力으로 各國의 設計受注方式에 대한 資料 등이 供給되어 解決에 도움을 주었던 일도 國際間에 協力과 支援으로 이루어진 좋은 例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協會는 建築士法에 依하여 設立된 唯一한 建築士의 모임이다. 그 법이 준 特權속에는 建築士 자신만을 위한 特權活動의 限界를 초월해서 建築士

業務와 關聯된 모든 分野에서 國家와 社會를 代表하여 後進養成으로부터 國際活動 問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奉仕해 나갈 責任까지도 결들여 있음을 알려야 할 것 같다.

이번 서울에서 開催되는 아세아建築士 第3次大會(ACA-3)에는 會員各國의 代表團은 물론이거니와 UIA會長, AIA會長, 日本建築士會聯合會會長 등 建築界의 重陣들이 大舉 參席하는 汎世界的인 國際行사가 될 것 같다. 우리는 이번 大會를 成功的으로 完逐함으로써 國威를 宣揚하고 우리나라의 建築文化와 風俗을 紹介하므로써 友誼를 두터히 하고 國際間에 團合된 建築士들의 힘을 과시함으로써 社會의 認識을 새로이 하여 폭넓게 누적된 問題點들을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겠다.

그동안 本大會를 準備해 나가는 課程에서 安箕泰 會長을 爲始한 任員, 支部長여러분과 準備를 위한 직접 活動을 擔當한 準備委員會 委員여러분의 勞苦와 會員여러분, 그리고 本大會 開催를 聲援 指導해 주신 各界人事여러분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本大會가 成功的으로 끝날수 있도록 여러분의 積極적인 大會參與를 부탁드리며 建築學徒 여러분의 Jamboree 參與를 期待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